

“남자주인공이 바뀌었다노, 절대 아닙니다”

tvN ‘치즈인더트랩’ 백인호 역 서강준
박해진 분량 축소에 대본 수정 논란 해명
“팬 아쉬움 이해 되지만 사실 아니다”



tvN 월화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의 배우 서강준(23)을 만난 것은 드라마 종영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온라인은 남자주인공 유정(박해진 분) 분량이 급감하고, 극의 중심에 있었던 유정-홍설(김고은)의 스토리 라인이 허물어지면서 애청자 반발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 원작자인 웹툰 작가 손끼마저 제작 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진짜 남자주인공은 유정-홍설과 삼각관계를 형성한 백인호 역의 서강준이라는 주장과 함께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돌았다.

최근 아침 11시부터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강준은 단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며 인터뷰에 임했다. 그는 ‘남자주인공이 바뀌었다노,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치즈인더트랩’으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서강준의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경청했다.

◇“제가 대본 바꿨다는 건 사실 아냐...팬 아쉬움은 이해”=서강준이 갑자기 일부 시청자의 미움을 산 것은 연출자인 이윤정 PD와 함께 대본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지난 1월 말 자신이 속한 배우그룹 ‘서프라이즈’ 행사에 참석한 취재진을 상대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대사는 바꿨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박해진 출연분량 축소 파동과 맞물리면서 서강준에게 적지 않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서강준은 “스토리 라인이나 대본을 바꾼다니, 더구나 신인인 제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장면마다 떠오르는 애드립을 넣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위해 대

사체, 말투를 바꾼 것이지 절대 대본 내용을 바꾼 건 아니에요. (대본은) 제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서강준은 “요즘 좀...”이라면서 한참 머뭇댄 끝에 “아쉬워하는 시청자가 많은데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팬들 아쉬움을 이해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욕심 내려놓고 재미있게 촬영한 첫 작품”=백인호는 ‘치즈인더트랩’에서 깔깔깔하고 자유분방한 모습 뒤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였다. MBC TV 사극 ‘화장’을 비롯해 전작에서 단정한 모습을 주로 보여왔던 서강준에게는 작지 않은 변신이었다.

서강준은 “하나로 굳어진 자기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은 꿈 같은 게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느냐”면서 “색다른 백인호 캐릭터 덕분에 대본을 연구하면서, 촬영 모니터를 하면서 ‘내게도 이런 색깔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즈인더트랩’은 캐릭터 변신뿐 아니라,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재미있게 촬영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서강준에게 각별했다.

서강준은 “이번에는 제 자연스러운 감정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커피잔을 잡거나 의자에 앉는 때라든가 백인호의 사소한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정다감한 박해진·고아문 김고은”=‘치즈인더트랩’에서 또다른 중심축은 어릴 적 함께 지낸 유정-백인호의 ‘브로맨스’였다.

서강준은 “백인호 자신은 느끼지 못 했지만 유정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이 컸던 것 같다”면서 “그러다 보니 싸움도 걸고 화도 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백인호와 유정이 가족과 닮은 사이였다가 6년 전 사건으로 가족과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진 점을 계속 곱씹다 보니 둘의 (애중 숙인) 관계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현장에서 저뿐 아니라 (박해진) 형도 금방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회 마지막에 오랜만에 재회한 유정과 백인호가 다투는 장면이 생각나요. 제가 그 때 ‘재한테 뭘 기 대한 거냐’고 혼잣말을 하는데 그 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유롭고 유쾌한 촬영 현장이었다고 전한 그는 박해진과 김고은에 대해 각각 “정말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신사다운 배우”, “제 연기를 어떤 식으로든 다 받아들일 정도로 유연하고 고마운 배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영화 ‘귀향’ 3·1절에 42만명 관람

‘동주’도 9만명 개봉 최대 관객

일제 강점기의 아픈 한국사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과 ‘동주’가 1월 31절 휴일을 맞아 각각 개봉 이래 최대 관객을 끌어들였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귀향’은 이날 전국 875개 스크린에서 3884회 상영되면서 42만496명(매출액 점유율 37.0%)을 모았다. 누적 관객은 1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귀향’의 종전 당일 최대 관객 수는 나흘 뒤 28일에 기록한 30만4566명이었다.

‘귀향’의 박스오피스 점유율은 지난달 24일 23.1%, 25일 26.1%, 26일 29.6%, 27일 29.7%, 28일 31.7%, 29일 34.0%에 이어 이날 37.0%로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중에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모티브로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극영화다. 국민의 후원과 배우·제작진의 재능 기부로 기적같이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다섯 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3·1절을 맞아 일제에 짓밟힌 아픈 역사를 잊지말자는 의미에서 관객들의 발길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귀향’의 조정래 감독과 배우들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날 서울 일대 극장에서 무대 인사를 진행했다.

시인 운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동규를 통해 일제강점기 청년들이 느껴야 했던 고민과 울분을 그린 ‘동주’도 이날 9만6104명(8.6%)이 관람해 지난달 17일 개봉 이래 최대 관객을 끌었다. 5억원 남짓의 저예산으로 만든 이 영화는 누적 관객 수가 75만2211명에 달해 이미 수익분기점을 훨씬 넘어섰다.

강하늘·박정민 등 주연배우의 열연, 운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절묘하게 결합한 시나리오와 절제된 연출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미디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25 TV블로그 폼지락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쿨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40 밀착토크 풍문으로 들었SHOW(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인생 우리말(재)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고사철>(재)	00 닥터 365 05 이색직업 별난학교
⑫	00 KBS 뉴스 12	05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7회만사상>(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①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공사창립 특선 대기획 <넥스트 휴먼(재)>	20 MBC 스포츠 2016 MBC배 대학농구 준결승전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블로그 폼지락
② 30 직인직설	00 공사창립 특선 대기획 <넥스트 휴먼(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건강클리닉 55 닥터 365	
③	00 공사창립 기획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튼튼생활제조사(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싸이걸스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④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청년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재)	00 TV 유치원 30 이윤정PD의 자연의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루기 탐구 생활
⑤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로보텍스 30 파파독	00 MBC 이브닝 뉴스	00 번신자동차 도보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공사창립 기획 6시 내고향 25주년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05 시사토크 따따따 15 TV블로그 폼지락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⑧ 20 나는 몸신이다(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동지>	30 공사창립 특별 기획 <이미지 음악회>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⑨ 50 서민갑부(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00 KBS 스페셜 55 송터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돌이아오 아저씨>
⑪ 00 아내가 뽀뽀다 남편법상(재)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특선다큐 <불동시장 최강희, 축구 그 이상의 드라마>	10 해피 투게더	10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담	10 자기가-백년손님
⑫ 40 에메이징 스토리 싸인(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5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8 생활 영어 05:30 건강천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재)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티터스(재) 07:30 꼬마비스트(재) 08:00 뽀뽀뽀 뽀로로 08:00 똥똥똥 유치원 1 08:05 튼튼 쑥쑥 알라차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똥똥똥 유치원 2 08:30 시계마을 디기톡! 08:40 똥똥똥 유치원 3 08:45 방귀대장 뽀뽀이	09:00 곰피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 테마 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남북 10대들의 통일 프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 12:40 역사채널 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콩 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후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곰피와 친구들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30 꼬마비스트(재) 17:45 뽀로로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바꾸면 산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인대스의 영혼을 찾아서, 칠레) 21:30 한국기행 (겨울왕국 울릉도)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3:50 역사채널 e(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일(음 1월 25일 甲申)

子	48년생 구색을 다 맞추려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60년생 어떠한 기준이내에 따라서 관도가 달라진다. 72년생 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정황이다. 84년생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는 번뇌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56, 20	午	42년생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구도이다. 54년생 진원지는 아주 가까운 곳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66년생 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78년생 솔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26
丑	49년생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61년생 크기로 보지 말고 밀도를 살펴야 할 것이리라. 73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 85년생 상하간에 이해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35, 37	未	43년생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 55년생 고령 관념을 버려야 해결된다. 67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79년생 시류에 따라 변하는 인심에 대해 크게 함수를 쉬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2, 82
寅	50년생 기금적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62년생 다 끝난 일이나 속히 미련을 버려라. 74년생 길로만 번지르르하게 봉합되어 있는 상태이니 잘 살펴야겠다. 86년생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6, 66	申	44년생 공리를 잘하여서 대처하지 않으면 반드시 봉쇄하게 되어 있다. 56년생 향심으로 대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68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80년생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재구설을 자초하리라. 행운의 숫자 : 79, 42
卯	51년생 예기치 못한 돌발적 현상으로 인해서 형세가 악화될 수 있다. 63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증가 일로에 놓이리라. 75년생 인위적이거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87년생 버리지 않으면 폐해가 속출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8, 57	酉	45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57년생 망각한다면 실수로 이어진다. 69년생 열정과 집착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81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위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행운의 숫자 : 14, 70
辰	40년생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52년생 전혀 짐작할 필요가 없다. 6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속이 행운이 따르리라. 76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88년생 맹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8, 42	戌	46년생 마음먹은 바가 그대로 결과물을 낳게 된다. 58년생 다소 잡음이 들리겠으나 대범하면 그만이다. 70년생 초기에는 험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룰 것이다. 82년생 길흉이 마주 대하고 있으니 판단과 선택에 신중 하라. 행운의 숫자 : 84, 88
巳	41년생 길흉을 달리는 기로에서 있다. 53년생 북이 눈앞에 와 있느니라. 65년생 가까운 곳부터 손질을 하는 것이 옳다. 77년생 성과가 불만족스럽겠다. 89년생 반세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7, 02	亥	47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59년생 상태의 심리를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71년생 구에 거슬러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83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마여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2,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